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 고전 삼국지의 명장면은 누가 뭐라 해도 적벽대전일 것이다.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손권의 오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조조는 수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거짓 항복한 방통의 조연대로 배들을 쇠사슬로 묶었다. 묶인 배들 간의 왕래는 자유로웠으나 손권-유비 연합군의 불화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결국 전쟁에서 참패하게 된다. 우리에게서 이른바 '연환계'로 잘 알려져 있다. 적벽대전에서는 거짓 항복을 역이용하는 책사들의 두뇌 싸움도 흥미진진하다. 손권의 책사 주유는 조조의 부하인 채종과 채화형제가 거짓 항복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심복인 황계를 매질한 뒤 내쫓는다. 내쳐진 황계가 조조에게 투항하자 조조는 그럴 리 없다며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손권 진영에서 황계

가짜뉴스는 공공의 적이다

가매질당하는 것을 목격한 채종·채화 형제가 사실이라는 점을 조조에게 몰래 전하자 조조는 황계의 거짓 항복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 주유가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은 황계를 심하게 때려서 거짓 투항계 했다는 점에서 '고육책'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하게 되었다. 이렇듯 과거 전쟁사에서는 수많은 가짜 뉴스를 둘러싼 정보전이 존재해 왔다. 나쁜 소문을 퍼뜨려 장군과 군사들을 빼오거나 하면 작은 정보도 크게 부풀려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보의 진위와 속석을 가릴 만큼 정보 수집의 양과 방식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고도 정보화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뜬금없이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과 같은 정보의 인포데믹 현상을 경험하였다. 인터넷, 스마트폰,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는 특수 정찰기도 없었던 삼국지 시대에는 그렇다 치자. 요즘이라면 곧 들 통날 가짜 뉴스들이 계속 확대·재생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신변 이상설,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넘는 침묵을 깨고 공개 활동을 통해 견재함을 과시하자 무분별한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에 대한 비판론이 실

로 커졌다. 특히 이들은 우리 정부가 충분한 정보 자산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들이 믿는 특정 정보 소스에만 의존하면서 의혹을 부추기는 경향을 보였다. 연예인 SNS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실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짜 뉴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옥석을 가리기 힘든 소위 정보의 홍수 현상 때문이다. 또한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이동 수단이 온라인으로 집중됨으로써 가짜 뉴스의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카더라' 하는 루머에 상처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에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교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며 무차별적이다. 적벽대전의 패배에서 보듯 정보 하나하나가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흥망까지도 좌우하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는가? 문제는 가짜 뉴스 생산과 확산의 보이지 않는 커넥션에 대한 패널리투라고 어렵다. 이들 세력은 특정 자본을 매개로 하고 있어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가짜 뉴스로 판명되어도 소리소문 없이 잠적했다가 얼마 지나

서 또 다른 의혹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의도가 있는 한 이러한 가짜 뉴스는 계속 생산될 것이다. 가짜 뉴스 생산과 확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지 않는 한 가짜 뉴스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파급력을 타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좀먹게 될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변 이상설이 불거짐으로써 그가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해명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 공개해서는 안될 전략 자산도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었다. 전략 자산이 없었던 조조도 스파이를 심어 상대편의 의도를 이중·삼중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 세계 유일 폐쇄 국가인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통일 전 동독 주민들은 서독 TV를 보면서 서방세계의 자유분방함을 동경했다고 한다. 자국적인 가짜 뉴스가 아니라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치 있는 '진짜 뉴스'는 없는 것일까? 가짜 뉴스가 공공의 적이라고 인식할 때 진짜 뉴스가 나온다.

종교칼럼

서로 살리는 길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마음씨 착한 한 청년이 겨울 산길을 걷고 있다. 그날따라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쳐서 무척 고생이 심했다. 다행히 길을 가다가 다른 여행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살을 에는 추위와 거친 눈보라 속에서 인가를 찾아 헤맸지만 어느덧 날이 저물고 말았다. 얼마쯤 갔을까. 청년은 눈 위에 쓰러진 채 신음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우리 이 노인을 부축해서 함께 갑시다. 이대로 두고 가면 얼어 죽고 말 거예요." 청년은 동행자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버럭 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저 노인을 부축하고 어떻게 간다는 거요? 난 먼저 갈 테니 당신 맘대로 하시오." 동행자는 매정하게 청년을 뿌리치고 혼자 가 버렸다. 청년은

흔하 가기에도 벅했지만, 불쌍한 노인을 그냥 열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청년은 노인을 등에 업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 속을 헤쳐 걸어 나갔다. 앞서서 가버린 동행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점점 힘이 빠져지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앞을 향해 나갔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의 더운 열기가 노인에게 전해진 탓에 노인도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추운 줄을 몰랐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한 사내가 쫄쫄 언 채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체는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 가던 동행자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다. 청년과 같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열어 죽게 된 노인을 돌봐 주어야 한다는 마음은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나보다 약한 이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한 마음이 그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동이란 그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또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깨쳐 가는 가운데 나의 인격은 성숙해져 가고 나의 가치관은 폭넓고 지혜롭게 자리 잡아가게 된다. 친구를 사귄 때도 마찬가지다. 우선 놀기에 편하고 즐기기에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길게 보면 나에게 충고를 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에 한 마음씨가 나오면 죄를 짓게 된다. 청년의 선한 마음이 두 사람을 함께 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 밭에 선한 마음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언제나 마음 밭에서 좋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소유해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크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선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자

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남을 돕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려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수행(修行)이라고 한다. 나를 이해해서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둘러싼 세상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 나도 믿게 되고 너도 믿게 되는 것은 신앙(信仰)이라고 풀이해 보고 싶다. 세상과 떨어져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뜻밖에도 마음을 낼 수 없는 것이다.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處處佛佛) 마음으로, 일일이 불공(事事佛供)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나와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기술, 바로 서로를 살리는 길이다. 요즘 뉴스 등을 통해 보면 마음을 잘못 써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된다. 마음을 잘 쓰는 것에 어른과 아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아이의 마음이 자라서 어른 마음이 되는 것이다.

社說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법적 제약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양어'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종전 부지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군공항 부지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짓고 분양해 5조 7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5조 7600억 원에는 신 군공항 조성 4조1000억 원, 종전 부지 정비 8300억 원, 이전 대상 주민 보상비 4500억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등 38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등 비용이 증가할수록 종전 부지의 고층·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 구도심 침체 가속, 아파트 과잉 공급 등 광주 전반에 악영향이 우

려된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광주는 상무·수완 지구 등 신도심이 조성될 때마다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구도심 주민이 이동함으로써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도심 재생사업도 따지고 보면 신도시 조성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와 간담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당부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국방부가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비용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만큼 실질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이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기부 대양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전면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모처럼 활기 되찾은 도심 그래도 방심은 금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인 지난 6일, 시민들은 비교적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큰 혼란 없이 하루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시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3개월간의 휴관을 끝내고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은 오전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관람객들로 모처럼 활기가 들었다. 하지만 일부 젊은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해 불안감을 주었다. 광주일보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첫날 도심 곳곳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상가의 자영업자들은 매출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는 표정이었다. 장기간 '방콕' 생활로 답답함을 호소했던 시민들 역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모습이었다. 광주 충장로에서 20년간 꽃집을 운영 하고 있는 A(54)씨는 "올해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느는 추세"라며 기대감을 보

였다. 또한 지난 2월께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도 대부분 재개되면서 집안에만 머물렀던 노인들도 기지개를 펴게 됐다. 광주시는 올해 예정됐던 노인 일자리 2만5468개 중 2만4012개(94.3%)를 재개하고 일부 대면 일자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바꿔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일부 시민들의 느슨한 경계 태세다. 본보의 취재 결과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여전히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지역감염 사례가 있어도 코로나19는 얼마든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철저한 생활 방역 이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위대한 과학적 이론이나 의학적 발견은 실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역사상 최악의 독감으로 5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스페인독감이 발생한 것은 1918년이었다. 그러나 스페인독감의 정확한 기원이 판명된 것은 80년이 지난 1997년이었다. 놀라운 것은 전문가의 연구가 아니라 4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의학자에 의해 이뤄졌다. 스웨덴 출생으로 미국에서 병리학을 공부하던 '요한 홀틴'은 25세이던 1950년, 바이러스 학자인 '윌리엄 헤일'로부터 스페인독감에 대해 강의를 듣게 된다. "아직 원인을 모르지만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냐. 일 년 내내 온도가 0도 이하로 항상 얼어 있는 영구 동토가 있는데, 그곳 사체에서 바이러스를 구하면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야." 강의록 들은 대학원생들은 흘려들었지만 '홀틴'만은 곧바로 삼을 들고 영구 동토를 찾아 떠났다. 알래스카와 웨일스 등을 돌아다니며 수년 동안 혼자서 삼집을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다 드디어 '브레비그'라는 곳에서 영구동토를 발견, 나홀로의 삼집 끝에 시신에서 폐 조직을 떼어 내 돌아온다. 하지만 갖은 연구에도 당시 능력으로는 바이러스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이후 병리학자로 살아가던 홀틴은 1997년 '제프리 토넨버거'라는 학자가 포르말린에 보관된 스페인독감 희생자의 폐를 연구한 논문을 보게 된다. 하지만 폐가 손상돼 바이러스 정보가 완벽하지 않았다. 1950년대에는 바이러스를 분석할 기술이 없었지만 1990년대에는 바이러신 검출기를 이용해 내는 기체가 만들어진 후였다. 이 소식을 접한 홀틴은 72세 고령에 다시 동토로 날아간다. 고령인 탓에 조력자들과 함께 간 그는 또다시 삼집로 폐 조직을 얻는 데 성공하고, 토넨버거는 그 폐 조직을 통해 스페인독감의 완벽한 정체를 밝혀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전 세계가 명운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나오길 기원한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기 고

코로나19 극복 앞장선 의료진·자원봉사원에 박수를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사랑과 감사의 달 5월, 오늘은 어버이 날인 동시에 '세계 적십자의 날'이다.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은 올해 세계 적십자의 날 슬로건을 '#KeepClapping'으로 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원 그리고 후원자에게 감사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중국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피해가 심각한 대구에 긴급재난구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5개 지사 12만 8000명의

자원봉사원과 함께 1000여만 명에게 550억 원 상당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 지방에서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앙리 뒤낭은 방치된 수천 명의 부상병을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치료하고 돌보았다. 제네바로 돌아온 앙리 뒤낭은 전장의 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저서를 출간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서에서 뒤낭은 부상병 구호를 위한 국제 원칙과 국가적 구호 단체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고, 이 제안에 따라 다섯 명(뒤낭, 의사 두 명, 변호사, 장군)이 모여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전시 부상병 구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현재 192개국에 적십자가 조직되어 인도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생은 '적십자 인도주의운동 확산'에 바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테러로 고통 받고 있으며, 수많은 자연재해와 작금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 등으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

140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192개국 적십자(적십월)로 구성된 국제적십자운동은 차별 없이 인간의 고통을 예방·경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각국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의 일곱 가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제적·비국제적 무력 충돌과 긴장 상황에서 중중 목숨을 걸고 피해자들을 지원, 이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재해 구호와 재해 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자연재해 및 보건 응급 상황에 대한 국제적 원조,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며 여러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2개국 적십자 및 적신월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결의를 통해 각국 지역 사회에 맞는 전략을 통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 2030'(글로벌 접근을 통한 지역 활동 강화)을 채택하였다.

향후 10년간 사회적 갈등과 재난이 빈곤의 요소로 작용하고 재난의 정도가 심화되며, 세계 최대의 이슈인 기후 및 환경의 위기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등의 출현과 고령 사회, 디지털 고령 등으로 보건과 행복에 격차가 생기고, 사회 분열 및 외국인 혐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 등에 따른 가치, 권력 및 통합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주에 따른 전통적인 시민권과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다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무임승차"라며 적십자운동에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오직 인류의 고통 경감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운동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피어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은 오늘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